

Open Doors

2020. 07. Vol. 219

박해와 선교현장

베트남 *Vietnam*

코로나(COVID-19) 긴급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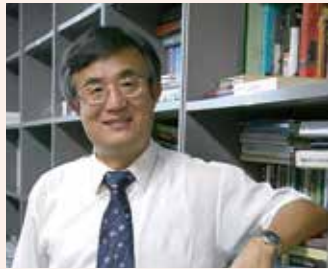
TALK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Open 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내 교회를 세우리라

김성태 교수 (한국오픈도어 공동대표/이사장)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하신 말씀이다. 갈릴리 호수 근교에서 두 번이나 오천 명과 사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지상 왕국을 세우려는 열망이 가득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실 왕국은 지상 왕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오순절 성령강림과 새언약의 공동체로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세워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신약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었다. 그것은 교회공동체가 성령의 내주하심과 능력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을 땅 끝까지 모든 족속과 피조 세계에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나타날 새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현된다. 주님의 약속은 인간의 크로노스적 지상 역사를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 질 것이다.

아무리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모진 핍박과 고난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인간적으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교회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에 불사조처럼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 질 것이다.

교회의 선교역사는 한 가지 뚜렷한 교훈을 나타내신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기다리시지만 교회가 진리의 기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온갖 오염된 더러운 것과 혼잡한 것과 복음진리를 손상시키는 거짓과 부정으로 가득하게 될 때 쇠퇴되고, 소멸된다는 것이다. 국제오픈도어선교회의 모든 선교사역은 고난 받는 교회공동체와 교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우는 일이다. 환란 중에 있는 교인들이 성경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일이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고난 받는 교인들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모든 악한 세력에서 보호 받게 하신다는 것이다. 본 선교회는 그 분의 자녀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간구하게 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고난 받는 교회공동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아처럼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한 그 분의 교회공동체가 서로 짐을 나누어짐을 알게 한다. 아무리 연약한 지체라도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보편적 교회공동체의 사랑의 나눔이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

시리아의 모술 지역과 이라크 동북부의 쿠르드 족속 기독교인들의 파괴된 주거지역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 나이지리아와 우간다 북부 지역의 파괴된 기독교인들의 거주지역이 재건되고 있다. 이들 지역들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항상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배교하면 쉽게 살아갈 수 있지만 이들 지역의 교회지도자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모진 고난을 경험한 교인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하심과 신비한 손길이 있었기에 이분들은 천국의 소망을 증거한다. 북한의 모처에 과 반세기전 조부모와 부모의 기독교 가정배경 때문에 오지 산골로 추방되어 살아가는 교인공동체가 있다. 이분들은 수많은 지옥의 협곡과 난관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그들 자손들의 간증은 경이롭다.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백성들이 광야생활에서 체험하였던 동일한 하나님을 체험하였다. 사막의 바위틈에서 생수의 근원이 터지고, 하늘양식인 만나가 공급되며 밤의 추위는 불기둥으로 막아진다. 이분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치 하나님의 손 덮개 안에 숨겨져 있는 모습이다.

본 선교회는 모든 고난 받는 교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손 덮개 역할을 사모한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 04 북한 선교 현장
나의 출애굽기(25)
- 06 박해와 선교 현장
베트남 Vietnam
- 10 베트남 오픈도어 사역
- 12 사역보고 1 인도네시아, 코로나에 MBB성도들이 힘을 얻다
- 13 사역보고 2 이란, 코로나에 지하교회가 빛을 발하다
- 14 코로나(COVID19) 긴급구호 캠페인
- 16 현장스토리 1 시리아, 카라바 마을의 해방을 알리는 교회 종소리
- 18 현장스토리 2 시리아, 니스린 자매 이야기
- 20 뉴스와 업데이트
- 22 HEART TO HEART 후원자스토리
- 23 한국오픈도어 연중캠페인/광고

OpenDoors 2020년 07월호 | 통권 219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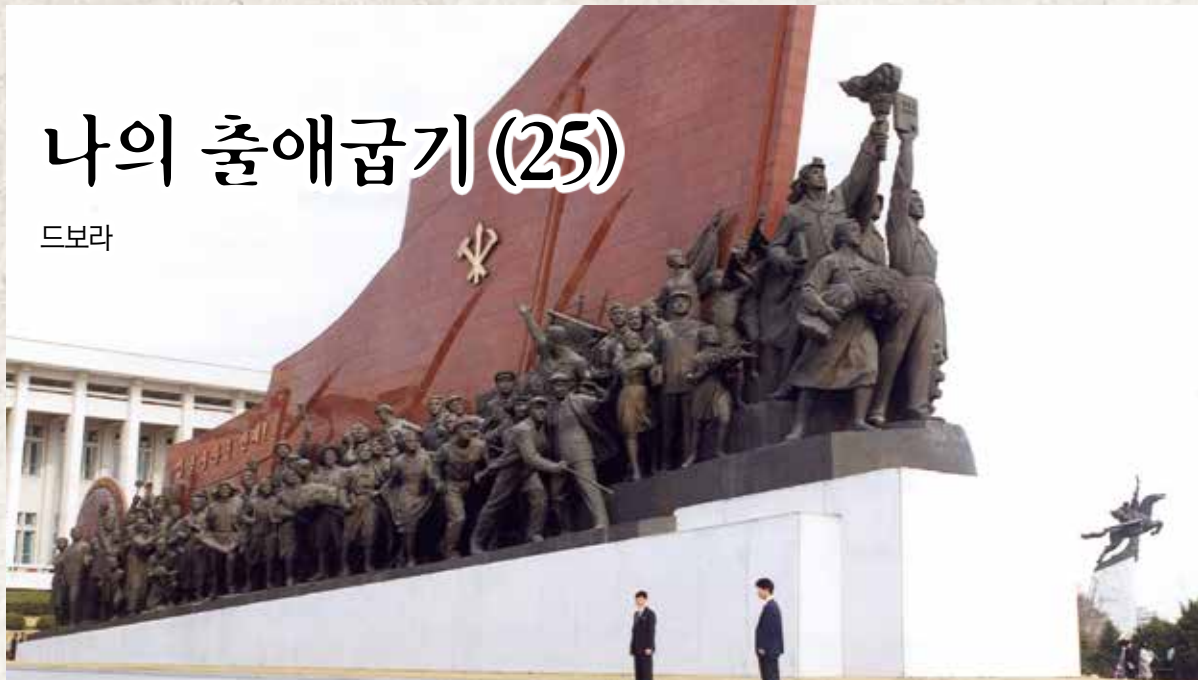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박윤환,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안창호 이사
 사무총장 _정규일 목사
 정보/행정/재정/홍보 _최임경, 문민환, 전신애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제이앤피

〈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 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오픈도어선교회: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북한 캠페인: KB 국민은행 029301-04-16918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 예금주 공동: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의 출애굽기 (25)

드보라



중국에 흩어진 고아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 중에는 북한과 중국을 왕래하며 일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루는 그분이 나에게 가족에 대해 물어보셨다. 오래 전 북에 두고 온 두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다. 별로 말 못할 일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큰 아픔인지라 나는 머뭇거리면서 못 데리고 나왔다고 대답했다. 내 대답에 그분은 왜 다른 북한사람의 자식들은 열심히 도우면서 정작 자기 가족은 못 데리고 나왔느냐며 안타까워하셨다. 나라고 그리고 싶지 않았겠는가? 하는 수 없이 가슴에 묻어두었을 뿐이다. 벌써 수십년이 지난 일이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이들을 잊을 수 없었다. 괜히 닮은 어린 아이를 보면 내 아이인가 싶은 착각을 하기도 하고 그럴 리 없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문득 문득 길에 보이는 아이들의 속에서 내 아이의 얼굴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다.

아이를 찾아보려고 시도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전에 북송 되었다가 동생의 도움으로 풀려나서 북한 안에 있을 때에도 백방으로 수소문했으나 꽃제비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이후에도

사람을 보냈으나 이미 시댁은 망하고 시어머니를 비롯한 어른들은 다 돌아가셨고 애들이 없어져서 찾을 수가 없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애들이 꽃제비 되었겠구나... 그러다가 죽었겠구나...’ 하며 들려오는 부정적 소식을 애써 삼키며 현실을 받아들이 수밖에 없었다. 내가 가진 아이들을 향한 죄책감은 절망적이었다. 지켜주지 못했다... 라는 말은 어미로서는 차마 입으로 꺼내기 어려운, 아니 꺼내서는 안될 말이다. 그래서일까? 자꾸 미련이 생겼다. 자녀들이 잘못되었다 혹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런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면서 애들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셨다. ‘네가 계획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북한이나 중국이나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으니 네 아이도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감동을 계속 나에게 주셨다.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울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 애들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여부만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예수님이 보이고 양쪽에 우리 애들을 붙잡고 계신 모습을 보게 하셨다. 그때 내 마음에 ‘그래 나는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돌보시는구나...’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다. 그때부터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함께하고 계시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다.

한편, 나에게 자녀에 대한 질문을 하셨던 그분은 나에게 내 자식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달라고 하셨다. 그래서 적어서 주었더니 한 달 뒤에 그분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전화를 받자 그분은 대뜸 나의 가족사항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셨다. 내 대답을 듣더니 그분은 “맞네 맞아...” 하시며 뜬금없이 입을 여셨다. 어렵게 어렵게 내 자녀들을 찾았다는 것이다. 아들은 군대가고 딸은 시집을 갔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이들이 살아있다니...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리의 맥이 짹 풀리면서 감사해서 막 울었다.

며칠 후에 내지의 시댁 조카와 통화를 할 수 있었다. 내 기억 속에는 그저 꼬맹이인데 이제는 장가가서 애도 있고 어른이 된 조카가 낯설었다. 조카는 내가 이미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자식들은 그나마 잘 살던 셋째 아주버님 댁에서 키워주셨다고 했다. 배급도 안 나오는 시절에 자기 자식도 챙기기 어려운데 시동생 애들을 거두어서 키워줬으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다. 다행이라는 안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딸이 시집을 갔다는 것도 큰 감사의 제목이었다. 고아를 데리고 가서 며느리를 삼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조건도 많이 따졌을텐데... 그런 어려움을 넘기고 시집을 잘 갔다고 하니 너무 감사했다.

통화를 마치고 난 직후에는 무조건 아들과 딸을 탈출시키고 싶었다. 그러나 마음을 가라앉히고다시 생각해 보니 이미 성인이 된 본인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에 있거나 남에 있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깨달음도 있었다.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들이 나에게 자기들을 버렸다고 원망해도 다 받을 마음에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자신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 드렸다. 북한 안으로도 말씀이 들어가고 있으니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

이 경험을 통해 내가 사역에 참여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나에게 맡기신 중국에 흩어진 고아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고아 된 우리 자녀도 돌보셨구나’ 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사역 현장에서도 더 열심을 낼 수 밖에 없었다. 소름이 돋을 만큼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감사하기에... 그 마음으로 중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더 정성을 쏟을 수 있었다. 그 아이들과 교제하고,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버려진 것 같은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된다. 섬기는 우리가 오히려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다. (계속)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 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베트남

Vietnam

인구 : 97,429,000 명

주요 종교 : 불교/민속신앙(60.3%),
무신론/불가지론(18.2%)

기독교 인구(카톨릭 등 포함) : 8,737,000 명(9%)

기독교박해 순위 : WWL2020- 21위, WWL2019- 20위

기독교박해 지수 : 72점

주 박해 요인 : 공산당과 공산화후 통제사회, 부족 전통종교와 부족공동체

※ 베트남의 종교분포 통계는 기관마다 다르게 발표하고 있다. 세계 크리스천 데이터베이스(WCD)는 50%가 불교이고 10%가 부족신앙이라고 본 반면에, Pew포럼에 의하면, 45.3%가 민속신앙이고 16.4%가 불교이며 8.2%가 기독교이다.

베트남에서 크리스천들은 왜 박해를 받는가?

1975년 베트남 전쟁의 종결로 통일국가가 된 베트남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몇 안되는 공산국가이다. 모든 권력은 공산당에게 있다. 국회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산당이 내리는 결정이다. 시민의 권리나 종교의 자유는 얻기 힘들다. 2018년 응웬 푸 쩡(Nguyen Phu Trong) 공산당 서기장이 대통령에 해당하는 국가주석이 됨으로써 향후 몇 년간 공산당 이데올로기의 공고화가 우선순위로 지속될 것이다. 당국은 공산당노선에서 벗어나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가혹하다. 상당수가

크리스천들인 인권운동가들은 제재와 구타와 억류, 실형을 받는다. 2018년 12월 하노이에서는 등록된 NGO들의 모임을 당국이 급습해서 폐쇄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긴장관계에 있지만 공산주의와 사회통제에 관한한 중국을 따르는 것이다. 크리스천들은 기존 질서에 도전하지 않는 한 용인되지만, 개신교 크리스천들은 상당수(2/3정도)가 소수민족들인데, 이 소수민족들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편에서 서서 싸웠기 때문에 쉽게 소요분자들로 여겨진다. 로마 카톨릭과 같은 전통적 기독교공동체는 개신

교에 비해 더 자유를 누리는 편이지만, 카톨릭 역시 역사적으로 식민지 배경을 가지고 있고 바티칸이라는 외국세력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카톨릭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회는 항상 정부의 레이다망 아래 있다. 카톨릭 소유의 땅과 건물도 때로는 정부에 수용된다. 가장 박해를 받는 이들은 비전통적 개신교 크리스천들과 부족의 전통종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이다. 특히 중부와 북부 베트남의 산지 부족들의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 정부는 감시를 강화하고 성장을 억제하려고 한다.

베트남에서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떤가?

• **사적인 영역** : 크리스천들이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하다. 시골에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동체를 동요시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폭력이나 감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도시에서는 좀 더 자유가 있으나 여전이 경찰에 소환되어 심문을 당할 수 있다. 베트남 시골 지역에서는 보통 한 지붕 밑에 3대가 살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 신앙행위와 전도는 매우 어렵다. 다른 크리스천들과의 교제도 가족들이 막는다. 또한 신앙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공산당에 대한 반대로 비춰질 수 있다. 종교의 자유를 주장한 크리스천 블로거들은 체포되어 형을 받거나 추방당했다.

베트남의 크리스천 온라인 통제

베트남의 페이스북 가입자는 5,800만명으로 세계 10위권에 드는 수라고 하는데 정부는 가입자 정보를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며 2018년 6월 ‘사이버 보안법’을 통해 페이스북과 구글 이용자 정보를 베트남에 있는 서버에 저장하도록 하여 크리스천 커뮤니티 활동을 파악하고 통제하려고 한다. 2017년에 한 크리스천 블로거는 10년형을 받고 항소심은 기각되었으며 2018년에 미국으로 추방되었다. 2017년에 베트남 군부는 “Force47”이라는 사이버 부대를 만들어 1만명의 스텝을 두고 인터넷을 감시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한 거대 텔레콤 회사는 군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감시가 쉽다. 프리덤하우스는 2019년 인터넷 자유에 관한 리포트에서 베트남을 “자유롭지 않음”으로 평가했다.

• **가정 영역** : 크리스천의 자녀들은 반기독교적인 교육에 참여하도록 강요를 받는다. 학교에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는다. 중부 고원지대 목회자 자녀들은 부모가 설교 등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당국의 압력을 받는다. 부모의 사역활동을 중단시키지 못할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협박을 당한다. 크리스천 가정의 자녀들은 때로 학교 출석 자체를 거부당한다. 또 가난한 소수민족에게 할당된 장학금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학교에서는 표적이 되어 교사들과 학우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기독교로 개종할 때 가장 흔한 핏박은 가족의 상속권 박탈이다. 또 호적에서의 제명이나 강제이혼 등의 위협이 있고, 출생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증명서 발급이 거부될 때가 많다.

• **지역공동체 영역** : 크리스천들은 지역공동체 또는 여러 단체들에게 감시를 당한다. 지역당국은 지역공동체에 이웃감시체계를 이용하여 크리스천들을 모니터링 하도록 장려한다. 크리스천들은 외국과 연계된 위험한 존재들로 인식시켜 규제를 당하게 한다. 온라인 활동은 심하게 감시를 당하며, 일부 교회지도자들의 전화도 감시를 받는다. 직장은 크리스천 차별이 가장 심한 곳 중의 하나이다. 공무원 뿐 아니라 개인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취업과 승진에서 배제되거나 제한을 당한다.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경찰에 불려가 심문을 당하는 일은 매우 흔하다. 베트남 북부에서, 경찰이 교인들에게 교회에 계속 나가면 의료혜택을 취소시키겠다고 위협했다. 마을 지도자들에게 불려가 교회활동 보고를 해야하는 것은 일상이다. 이들 눈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게 비치면 이들이 경찰에 고발한다.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은 호지민 초상화에 경의를 표해야 한다. 교장선생님은 크리스천 학생들에게 졸업을 해도 취업을 못할 테니 상급학교에 진학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한다. 제적의 위협도 받는다.

• **국가영역** : 세계인권선언18조항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헌법이 제한한다. 베트남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엄격하게 따르고 국부 호지민을 숭상한다. 공산당 이념과 다른 모든 신앙은 배척하고 종교는 “법령92호”로 알려진 법들에 규제를 받는다. 새

로운 포괄적 “종교와 신념에 관한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새 법에 의하면, 종교단체의 등록 절차와 대기 기간이 대폭 줄었다. 또한 종교단체들도 교육, 의료, 자선, 인권 등의 활동을 하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행에 있어서 베트남 교회들은 아직 안심을 하지 못하고 있다. 크리스천들은 반민족적, 반정부적이고 반공산주의자들로 여겨지기 때문에 통제와 차별을 당해야 하고, 공산당원은 신앙을 고백해서는 안된다. 군인들도 복무 기간에 성경을 읽거나 종교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크리스천들은 식민지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도구로 활동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대중매체의 비난과 공격을 받는다. 크리스천들을 공격한 자들은 거의 재판을 받지 않으며 크리스천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다. 신분증에 종교 표기란이 있다.

• **교회영역** : 교회의 활동들은 감시와 제재와 방해와 금지를 당한다. 법적으로 교회는 활동들을 신고해야 한다. 합법적인 등록교회가 되려면 엄청난 행정절차가 요구되는데 절차를 다 마쳐도 등록이 허가된다는 보장은 없다. 행정절차는 정부가 교회의 성장을 통제하고 공산당의 지배 아래 두려는 방편일 뿐이다. 등록된 교단에 가입한 교회들조차도 정부와 지역당국의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 2018년 1월1일 발효된 새 종교법은 교회등록 서류절차를 간소화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교회활동을 정부 통제 하에 두려는 것이다. 2018년에는 호지민 시에서 두 개의 개신교회가 ‘종교활동을 위한 등록증명서’를 받았다. 교회 건축허가는 물론 매우 제한적으로 당국이 통제하며, 당국이 교회소유 토지를 빼앗는 일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모든 출판물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높은 수입 규제 때문에 신앙교재 인쇄물들을 베트남에서 인쇄해야 한다. 번역물도 검열을 받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몽족 언어로 된 성경 출판은 베트남어 성경 출판 보다 훨씬 더 승인받기가 어렵다. 새 인터넷 법은 교회에 대해서도 매우 제한적이다. 외국 종교 프로그램을 케이블TV에서 보려면 베트남어 번역 자막없이 내보내야 한다. 매년 10월이면, 등록

된 교회들은 내년 1년 동안의 설교 주제 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WWL2020 베트남 박해보고

(2018년 11월 1일~2019년 10월 31일 기간)

살해된 크리스천 수	1 명
공격받은 크리스천 수	107 명
체포된 크리스천 수	194 명
공격받은 교회 수	10 개
크리스천 소유의 집과 사업장 공격 건 수	128 건

최근 박해 사례

- 1년 전에 지앙(가명)과 아내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부모님과, 친척, 일부 마을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지난 5월5일, 분노한 친척들과 마을 주민들은 지앙의 집으로 찾아와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을 강요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마을을 떠나야할 것이며 일가에서 제명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앙 부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설명하고, 그리스도로 인해 자기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은 히스테리컬하게 반응을 하면서 당장 마을을 떠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앙의 친척과 마을주민들은 지앙의 가족을 내어쫓으며 입고 있는 옷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앙의 부모님도 지앙과 부자관계를 끊고 이제 가족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 베트남 북부, 중국과 국경 지역 한 마을에 사는 크리스천 18가정 총 107명이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수급을 거부당했습니다. 당국은 말하기를, "너희는 기독교인들이니 너희 신이 너희 가족을 먹여 살릴 것이다! 정부가 너희 가족들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 고 했다고 합니다. 이 가족들은 중국 국경 근처에 살면서 하루하루 벌어 먹고사는 가난한 노동자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일이 없어지니 집에 쌀이 떨어져갔습니다. 이 소식에 오픈도어의 긴급 구호식량(쌀 25kg)이 6월 둘째주에 보내졌으나 현

지사역자들이 배급을 시작한지 15분 만에 당국에서 와서 출처를 물으며 배급을 중지시켰습니다. 현지 목사님이 담대히 맞섰지만 결국 구호식량을 다른 마을 성도의 집으로 옮긴 후 한 가정씩 몰래 그리로 가서 식량을 받아와야 했습니다. *참고로 한 가정에 25kg 4포대씩 전달했습니다.

베트남 개신교회

16세기, 17세기에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무역상들에 의해 기독교가 베트남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그후 1859년부터 1954년까지 프랑스가 인도차이나를 식민 지배하면서 프랑스 카톨릭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 주요 도시들에서 큰 성당들을 볼 수 있다. 개신교는 1911년에 CMA교단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교단의 서구 선교사들이 들어와 활동하며 교회를 세웠다. 산지 부족 교회들 중 일부는 베트남 전쟁 기간에 라디오 방송에 의해 세워지기도 했다.

베트남 기독교인 현황

정교회	0 명(0.0%)
카톨릭	7,085,000 명(81.1%)
개신교 기성교단	1,558,000 명(17.8%)
독립교단	571,000 명(6.5%)
무소속	17,700 명(0.2%)
이중소속	-494,000 명(-5.7%)
합계	8,737,700 명(100%)

베트남을 위한 기도와 후원

- 베트남에서 개신교가 성장함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교회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규제가 완화되고 종교활동의 자유가 신장되도록 기도해주세요
- 베트남의 새신자들, 특히 몽족과 같은 소수민족의 새신자들의 믿음이 견고하도록 기도해주세요.
- 전통민속종교로 돌아오도록 압박하는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기도해주세요.
- 오픈도어가 현지 파트너들과 진행하는 여러 사역

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첫째로 교회의 성장에 따라 훈련된 사역자들의 필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성경적 훈련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 가족, 어린이, 청소년, 여성에 대한 성경적 훈련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 성경전달(어린이 성경과 부족어로 된 성경들)과 신앙서적들이 잘 전달되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글자교실과 사회경제적 개발(SED) 프로젝트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옹호사역과 긴급구호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시골지역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많은 소수민족인들에게 적절한 제자훈련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나의 가장 큰 선물”

존은 오픈도어의 후원으로 제작한 어린이 그림성경을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받은 어린이들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빠가 이 성경책을 집으로 가져오셨을 때 난 너무 감사했어요. 그건 내가 아빠한테서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에요.” 현지 사역자들의 용기와 헌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놀랍게도 현재까지 베트남에 어린이 그림성경 60만권이 전달되어 베트남의 다음세대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돕고 있습니다





문서사역



코로나19 긴급구호



성경학교

베트남 오픈도어 사역



어린이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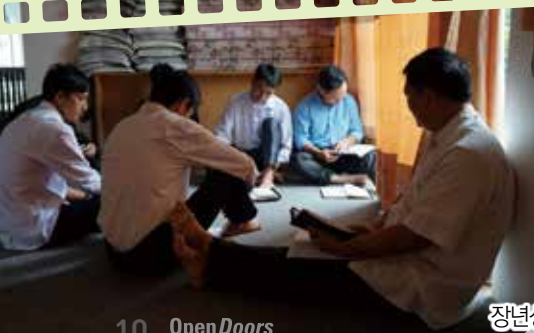
청년훈련교재



어린이캠프



여성훈련교재



10 OpenDoors



장년성경공부



제자훈련



청소년캠프



인도네시아, 코로나19 위기에 가장 힘든 MBB 성도들이 힘을 얻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출신 성도들은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5월29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25,000명에 이른다. 수백만 명의 인도네시아인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인도네시아 노동부에 의하면, 2020년 4월 이후로 190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정부의 구제프로그램이 있지만 MBB크리스천들은 차별을 당한다. 오픈도어는 팬데믹이 선언된 초기부터 현지와 긴밀히 연락하여 긴급구호를 시작했다. 쌀, 소금, 설탕, 기름, 밀가루, 국수, 차와 같은 식료품으로 14일간 지탱할 수 있는 분량이었다.

인도네시아 현지 파트너는 “위기 상황에서 구호품 배급이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나 개종한 기독교인(MBB)들은 보통 제외되거나 잊혀져 왔어요. 혼란 일입니다.”라고 전했다. 자연재해들이 발생할 때마다 무슬림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기독교인들은 엄격하고 어려운 절차들을 거쳐야 겨우 도움을 받을까말까 했다. 인터뷰에 응한 스리 자매 역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스리는 남편과 사별하고 다섯 자녀를 홀로 키우며 식료품상에서 일했으나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었다.

전도활동을 한 사역자들은 정부의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 지역공동체의 무슬림 종교지도자들에게 사역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역자들은 심문을 받고 집을 이사하라는 강요까지 받는다. 의료 혜택에서 차별을 당하기도 한다. 한 자매는 시어머니가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는데 병원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았고, 길에서는 사람들이 ‘저 기독교인!’이라고 하며 혐오의 눈길을 보내서 정말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불공평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성경적 원리를

실천하고 믿음을 보이는 기회로 삼고 있다. MBB성도 그룹의 리더인 프라부는 말했다. “정부의 불공평한 처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눠주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빛이 되려고 합니다.” 현지 사역자인 팍 마트는 “MBB 성도 그룹한테 많은 걸 배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기적들을 매우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시니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 무슬림들에게 아낌없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인도네시아 사역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인 제자훈련이 코로나 사회적 격리에 따라 직접 만남은 중단되었지만, 많은 경우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성경과 훈련 콘텐츠를 짧은 동영상이나 글로 만들어서 소셜미디어 앱 채팅그룹을 통해 전달하고 있어요. 유튜브 설교 링크도 보냅니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이들이 이 자료들을 받아서 다시 자기들이 양육하고 있는 제자들과 나누고 있습니다.”라고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는 말했다.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오픈도어는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희망을 전달하고자 지난 두 달 간, 다양한 제자훈련 그룹들의 수백명 성도들과 함께, 앞서 언급한 스리 자매와 같은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3월에 보고된 바로는 주로 일용직 근로자였던 성도들 181명에게 구호품을 전달했다. 한 MBB 그룹의 리더인 아유는, “여러분의 도움은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특별히 지난 두 주간 일용할 양식과 생필품이 절박했던 우리 멤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요 확증입니다!”라고 말했다. 스리 자매도 기쁨에 차서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란, 코로나19 위기에 지하교회의 구호활동이 빛나다

이란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이미 위기 가운데 있는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플레이가 너무 심해서 고기도 살 수 없고, 과일도 사기 어려워, 사람들은 쿵만 더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지하교회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하교회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그들 나름대로의 수단을 이용하여, 식품과 위생용품 등을 지역사회에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란의 성도들은 이렇게 도울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나눔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전해왔습니다: “나눔은 엄청나게 멋지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경험이었어요.”라고 한 성도가 이메일에 썼습니다. “우리가 식료품을 주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은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울기도 하고, 얼싸안고, 기쁨의 합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담대히 말하건대, 이 구호물품 패키지는 큰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인도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여자 성도는 교회 리더에게 전화를 걸어 기쁨에 겨워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우리가 음식을 나눠주러 나갔어요, 누가 봐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만났어요...그 사람들은 너무나 고마웠어요...사모님,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자기가 만나 도움을 준 사람들 예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잘 먹지 못해서 아주 약하고 아픈 아이들 두 명이 있었고요, 또 노인들도 있었어요. 노인 중 한 분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이세요. 그런데, 사모님, 그 사람들은 음식을 받고 믿을 수 없어 했어요. 코로나 위기가 시작

된 후로 이렇게 많은 음식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도 이 일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오늘 그 사람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잊지 못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구호식량은 무슬림, 크리스천들, 무신론자들까지,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한 교회 지도자는 가난한 성도가 자기의 구호식량을 이웃 가정과 나누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웃 가정은 말할 수 없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이렇게 너그럽게 나눠주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그 성도는 자기가 돕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호품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식구도 이번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17세 소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거의 이 세상을 완전한 흑암으로 볼 뻔했어요. 근데 이제 이 세상에도 선한 마음을 가진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들은 크리스천들이었어요!” 다른 교회 성도의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이란의 성도들은 이 구호식량들이 어느 단체로부터, 혹은 누구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들이 알게 되면 너무 위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지역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를 전하기 원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원요청

오픈도어 코로나(COVID-19) 긴급 구호

오픈도어는 코로나(COVID19) 봉쇄로 생활이 어려워진 박해지역 성도들에게 식료품과 생필품, 위생용품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5월초까지 현지 파트너들을 통해 아시아 박해지역에서 총 20,000명의 크리스천들을 지원하고 추가로 50,000명을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호물품 패키지는 약 25달러 상당이고 이는 5명 한가족의 1개월 생존을 도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후원계좌 : SC제일은행 221-10-011008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시리아, 카라바 마을의 해방을 알리는 교회 종소리

라미는 7년전, 시리아 남부에 있는 카라바(Kharaba) 마을이 이슬람 반군에게 점령당했을 때 스스로 다짐을 했다: “우리 마을이 해방되는 날, 나는 교회 종을 울릴 것이다.” 오늘, 라미는 힘을 다해 교회 종의 줄을 잡아당겼다. 즉시로 교회 종이 울리며 마을 전체에 기쁨의 소리가 퍼져 나갔다. 종소리에 마을 주민들은 7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당으로 들어갔다.

카르바는 다마스쿠스(다메섹) 남부 다라(Daraa)와 수와이다 (Suwayda) 사이에 위치한 작은 크리스천 마을이다. 고대 로마 왕들의 여름 휴가 장소이기도 했던 유서 깊은 마을이다. 거리와 건물에서 풍부한 역사의 일부를 볼 수 있다. 카라바는 공식적으로 수와이다 행정구역이고 주변은 무슬림 수니파 마을들로 둘러싸여 있다. 카라바는 산과 계곡이 연결되어 농사에 최적화된 곳으로 주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한다. 이 모든 것이 2014년 시리아 내전 발발과 함께 변했다. 이 크리스천 마을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에게 점령당했고 주민들은 동쪽으로, 이슬람에서 갈라져나온 드루즈교인들이 대다수인 마을들로 피신을 했다.

싸미 알 사디는(Samih Salem Al Saddi)는 48세의 목사이다. 그가 지난 7년간의 이슬람 극단주의 점령기간에 카라바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는 2003년과 2012년 사이에 다라 얼라이언스 교회를 담임했고, 이후 카라바-수와이다의 얼라이언스 교회를 맡고 있다. 싸미 목사는 설명한다. “마을이 점령된 후에, 장로교회 하나만 예배를 계속했어요. 두 명의 크리스천 청년

이 살해당해서 그들의 장례식을 이 교회에서 치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극단주의자들이 공격했어요. 글자 그대로 우리는 공포에 떨었어요. 살해된 두 청년은 시리아 군인 출신이었거든요. 그후로 모든 교회가 폐쇄되었고, 교회는 물론 집에서까지 예배드리는 것이 금지되었어요.” “그 암흑의 시절에, 크리스천 마을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금지되고, 교회들은 이슬람반군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십자가를 파괴하고 의자를 부수고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의 귀중품들을 약탈해갔습니다.”

불행히도, 카라바의 크리스천들은 이런 일만 겪은 것이 아니다. 복음주의 교회 성도인 라미 형제는 젊은 청년들의 납치가 빈번히 일어났다고 전했다. “반군의 중요한 멤버가 죽을때마다 극단주의자들은 우리를 비난하며 마을을 공격하여 눈에 보이는대로 젊은 청년들을 납치해갔어요. 며칠 후에 돌려보내기도 하고, 몸값을 요구하기도 했지요. 잡혀간 이들이 마을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싸미 목사가 덧붙였다: “카라바 복음주의 장로교회 장로님 한 분도 그렇게 되셨어요. 납치를 당해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기 위해 시신을 수습하고자 했지만 그것도 안됐어요.”

극단주의자들은 파괴만을 남겼다. 싸미 목사는 말한다. “마을에 올리브 나무들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입원인데 말이죠. 나무들이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무슬림 마을들에 둘러싸인 지역 교회들 일부는 모스크로 변해서 군인들이 사용하거나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카라바 주민 수는 공식적으로 약 3,000명이다. 그러나 이 숫자에는 이웃 도시의 주민들이 중복 거주하는 가구들까지 포함된 것이고 이 마을 영구 거주민은 딱 170 가정이다. 대부분 점령 기간에 마을에서 떠났고, 70가정만이 남아있다. 가족 중 한 명만 남아서 집과 재산을 지키는 경우도 많다. 이제 마을에 청년들은 거의 없다. 싸미 목사는 말했다. “주민 대다수가 노인층이고 젊은이는 많지 않아요, 여자와 어린이들은 피난을 갔지요.”

카라바 마을 크리스천의 약 50퍼센트는 로마정교회 소속이다. 로마정교회 교회당은 두 곳인데 하나는 현대식 건물이고 다른 하나는 고대 건물이다. 40퍼센트는 복음주의 교회로 주로 장로교인들이다. 장로교회 건물도 있다. 나머지 10퍼센트는 카톨릭이다. 극단주의자들은 카라바의 교회들을 파괴하려고 했다. “그들은 복음주의 교회들을 불태우려고 했어요.” 싸미 목사는 말했다. “불길에 예배당 좌석과 강단까지 미쳤지만 우리가 불길을 잡을 수 있었어요. 음향기와 장비들, 심지어 창문까지 약탈당했어요. 정교회 건물은 폭탄을 맞아 상당부분이 파괴됐어요.”

그 기간 교회의 역할에 대해, 사미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마을을 떠난 교인들과도 계속 연락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목회사역을 계속 하면서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구호물품들을 전달했어요. 카라바 마을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구제 물품들을 제공했지요. 파괴된 주택 보수를 위한 재정지원도 했습니다. 또 문구사무용품을 지원했고, 교통비도 지원했어요. 한번은 불타 없어진 나무들을 다시 심기 위한 기금을 제공했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싸미 목사는 전한다: “우리를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우리는 이 마을에, 또 주민들의 삶 속에 변화를 주고 평화롭게 살아가길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싸미 목사는 카라바 마을이 극단주의자들의 손으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표현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2020

년 5월2일에 해방되었습니다. 큰 축제였지요. 사람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차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이 섞인 눈물이지요. 마침내 고향에서 삶을 재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가장 감동적인 소리는 7년간의 침묵 끝에 마을에 울려 퍼진 교회 종소리였죠. 모든 교회가 참여했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싸미 목사는 마을을 위한 기도 부탁도 잊지 않았다. “카라바의 교회가 주민들의 삶 속에 효과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세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기도해주세요. 또한 카라바를 떠났던 가정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돌아오는 청년들을 위한 수입창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020년 5월17일, 교회는 2012년 이후로 처음 예배를 드렸다; 교회 좌석이 다시 사람들로 가득찼다. 마을의 모든 성직자들과 목사님들이 다같이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자유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교회 종을 울린 라미 형제는, 도시에 일자리를 얻고, 자기가 나고 자란 고향 집에서 안전하게 다시 살 수 있게 되었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교회를 다시 다닐 수 있게 되었다.

파괴된 주택들, 농장들, 교회들을 수리하려면 많은 돈이 들 것이다. 교회 종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데는 불과 10초 밖에 안 걸렸다. 교회 종소리는 폭탄과 파괴의 소음들에 대한 기억을 가라앉혔고 증오와 박해를 이기는 평화와 사랑의 선언이었다. 교회 종소리와 함께, 거리와 가게들과, 교회들, 광장들이 웃음과 따뜻한 인사로 가득 찼다. 마치 이 종소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카라바 마을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하나님이 다시는 그들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거라는 안심을 시켜주는 것 같았다.

시리아, 예수의 빛으로 얼굴이 환한 “니스린” 자매 이야기



“제가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세상이 알게 해야지요,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끄러워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제가 왜 주님을 부끄러워하겠어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내 아이들의 안식처예요.” 니스린은 이렇게 말하며 온 세상이 자기의 간증을 듣기를 원했다. 그녀는 무슬림 가정에 태어나 개종한 MBB새신자이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도움을 받은 이들 중의 한 사람이다.

우리는 간혹 얼굴에 예수님의 빛을 띠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이 시리아 여인 니스린 자매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녀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잇을 수 없는 미소를 띠고 있다. 40대의 니스린은 3명의 딸과 아들 1명을 둔 기혼녀이다. 그녀는 무슬림 출신이지만, 이슬람 종교에 강한 믿음은 없었다고 한다. 그녀는 항상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에 끌

렸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안에 심어졌어요. 저는 기독교인들의 행동이 우리들보다 나은 것을 보곤 했어요. 나는 항상 크리스천들을 좋아했고 부모님께도 ‘나는 기독교인들에게 무언가 끌린다’고 말했어요.” “학교에서, 우리는 코란의 구절들을 암기해야 했는데, 나는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니스린은 시리아 북동부의 카미실리 라는 작은 도시에서 산다. 옷차림은 여전히 무슬림 여성과 같다. 머리에 베일을 두르고, 긴 드레스로 몸을 감싸고 다닌다. 중동의 여느 소녀들처럼 니스린도 15세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 지난 9년간의 내전 동안에, 다른 많은 시리아인들과 마찬가지로, 니스린의 가족도 궁핍해졌다. 그녀는 카미실리에 있는 한 교회(Alliance Church)에서 식량을 나누어준다는 소식을 듣고 도움을 받으러 교회로 갔다. 이 교회는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우리의 파트너 교회들 중의 하나이다.

니스린은 그때의 일을 이렇게 전한다:

“저를 등록시켜주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거죠. 다음에 다시 오라고 했어요. 12일 후에 저는 다시 갔어요 그땐 정말 절박했어요. 아이들에게 먹일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소리내어 울며 신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구호품을 나누어주는 봉사자 형제가 또 배급자 명단에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피곤하고, 마음도 지쳐 있었어요. 울고 있었고, 몸도 아주 말라서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나는 물 한잔을 청하고 잠깐 앉아있었어요. 그 형제가 물었어요. ‘라마단 기간인데 금식 안하세요?’ ‘나는 안해요’라고 내가 답하자, 그 형제는 다시 물었어요. ‘신을 믿지 않으세요?’ 나는 말했어요. ‘나는 신을 믿어요,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어요 그러나 이슬람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믿지는 않아요’ ...아부는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해 한시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듣고나서 물었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고 했죠 그러면 나도 크리스천이 될 수 있나요?’ 물론 그는 대답했어요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다고요.”

니스린은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고 넘치는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말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구호식량도 받았어요!” 니스린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감추지 않았다. 남편에게 이틀 동안이나 주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했다.

니스린은 후에 교회로 초대받았다. 그녀는, “예배 중에 나는 많이 울었어요. 딸도 데리고 갔었죠. 오는 길에 너무나 큰 기쁨을 느껴 ‘예수님 감사합니다’를 외쳤어요.”라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니스린은 모든 설교에 감동을 받았다. 조지 목사님이 요한복음 설교를 할 때는 울음이 터져나왔다.

새로운 신앙이 자라가면서, 니스린은 제자훈련도 받기 시작해 벌써 3단계까지 마쳤다. 세 딸과 아들도 전도하여 같이 교회에 나오고 있다. 남편은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지만 곧 나오게 되리라고 그녀는 믿는다. “난 항상 성경을 읽어요, 구약 신약 다 읽고, 크리

스천 TV도 자주 보지요.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을 제자 훈련 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니스린의 경우, 예외적으로, 개종이 가족들에게 잘 받아들여졌다. “남동생이, 지금 독일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께 편지를 써주었어요. 제가 바른 길로 가고 있으니 기뻐하셔도 된다고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때부터 예수님을 좋아했다고 하시며 반대를 안하시고, 가족 중 유일하게 반대하는 분은 어머니세요, 어머니는 저에게 교회에 가면 안된다고 하시고 제가 아이들을 교회로 잘못 인도했다고 하시죠. 제 아들은 외할머니한테 항상 예수님 이야기를 하거든요.”

니스린은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이렇게 말한다: “크리스천이 된 후의 변화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수백만가지가 변했어요. 신앙은 내게 힘을 주지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삶이 두렵지 않아요. 예전에는 자살까지도 시도해봤어요.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바샤르에게도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전에는 아들이 아주 신경질적이었어요. 이제 아들은 화가 날때마다 성경을 펴서 읽고는 차분해져요.”

구호품을 나누어주는 봉사를 하며 니스린에게 복음을 전했던 형제, 아부는 교회에서 니스린을 보고 힘을 얻는다며 이렇게 전했다: “기쁘죠! 니스린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볼 수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봅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코하람 세력의 공격 여전



6월9일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 주 구비오 지역의 파두마 마을(Faduma koloram)에서 이슬람 보코하람 분파 ISWAP(Islamic State West Africa)의 공격으로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주민 8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설교를 전하려고 한다고 말하며 주민들의 무기를 압수하고나서 2시간 이상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테러단체의 움직임을 정부에 알리고 있다는 의심에서 나온 공격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군대에 엄중한 보복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지역에서 이미 피신을 한 상태라 이 끔찍한 공격에서 피해를 입은 보고는 없습니다.

이집트, 합법적인 교회 증축 불법 철거, 3000명 교인들 항의

지난 5월20일, 이집트 나일 델타 서부의 한 마을(Koum Al Farag)에서 200명의 경찰이 한 교회 건물을 파괴했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교인들은 폭행을 당하고 경찰에 붙잡혀갔습니다. 성직자도 폭행을 당해 기절했습니다. 이 교회 건물은 15년 전에 세워졌고, 교인 수는 3000명에 달합니다. 크리스천 주민들의 결혼식과 세례식, 장례식이 행해지는 장소입니다. 늘어나는 필요에 의해 교회옆에 교육관 건물을 3층으로 짓기로 결정하면서 무슬림들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건축을 시작하자 극단주의 무슬림들이 공격해왔고, 처음에는 다행히도 온건한 무슬림 주민들에 의해 공격이 저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극단주의자들은, 이미 4개의 모스크가 있는데도 분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교회 바로 옆 농지에 모스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법건축에 대해 경찰은 교회건축이 원인이라고 하며 둘 다 철거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고, 교회의 증축은 합법적인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단행했습니다. 체포된 교인들은 풀려났지만 폭행으로 입은 골절과 부상에 대해 치료나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보리코스트(코트디부아르), 교회 공격, MBB청년 명예살인



5월31일 주일, 수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45km 떨어진 케케레 마을에서, 아프리카 전통 종교 신봉자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Generation of Followers Church)를 공격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통종교행사에 참가하기를 거부한 데 대한 보복이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여러 명의 성도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편 무슬림에서 개종한 MBB청년(Ouattara Adama)이 개종에 대한 징벌로 친형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슬림으로 돌아올 것을 강요하던 형은 아다마의 출생증명서 요구에 대해, 무슬림이 아닌 자에게 출생증명서는 없으며 출생증명서와 함께 너도 불태워버리겠다고 말하고 아다마가 잠든 사이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방글라데시, 슈퍼 사이클론 '암판' 피해로 고통 가중, 구호 진행 중



지난 5월20일 20년만에 가장 강한 슈퍼 사이클론 태풍 '암판' 이 벵골만을 강타했습니다. 이로 인해 50만 명이 집을 잃었고 10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대피소에 있는 이들에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도 불가능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그 전에 이미 1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273명씩 발생하고 누적 확진자 수가 25,000명을 넘어선 상태에서 태풍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대부분 양철로 지어진 집들이 태풍으로 파괴되었고 전력공급도 끊겼습니다. 복구는 오래 걸리고 코로나19 격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지 오래된 상황에 태풍의 피해까지 입은 성도들을 위해 오픈도어의 긴급구호가 진행 중입니다. 오픈도어는 6월15일까지 약 1,600가정에 식량을 전달했고 추가로 500가정을 더 도울 예정입니다. 또한 120가정의 집짓기(한 집당 비용 2,500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테러 피해자 소녀가 코로나19 응원 메시지를 전하다

트리니티는 2016년 인도네시아 사마린다에서 일어난 교회(Oikumene Church) 테러로 전신 화상을 입고 아직도 치료 중인 7세의 인도네시아 여자 어린이입니다. 오픈도어를 비롯한 여러 분들의 후원으로 지난 4월30일에 중국 광저우로 치료를 받기 위해 갔습니다. 피부조작이 병적으로 증식하는 켈로이드 현상이 계속 일어나 정상적인 치유가 어려운데 치료 중 트리니티가 아픔을 감당하지 못해 현재 치료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들과의 만남도 제한되고 통역을 맡아줄 인도네시아 의사선생님도 동행하지 못해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트리니티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응원하는 그림을 그려 오픈도어에 보내왔습니다 그림에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어요” 라고 썼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코로나19로 ‘메카 순례(하즈 Hajj)’ 취소 가능, 기도 요청



7월28일~8월2일은 모든 무슬림들이 일생에 적어도 한번 방문하기를 기대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순례하는 연중 최대 축제기간입니다. 무슬림들은 이 순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아라파트 데이 Day of Arafat’ 를 참회 속에 보내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대순례(하즈 Hajj) 축제가 열릴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발발로 그랜드 모스크와 소규모 순례(Umrah)들은 취소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전세계 무슬림들이 이슬람과 이슬람교리에 의문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사함을 이해하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꿈과 환상으로 보게 해달라는 기도부탁이 중동의 사역자들로부터 올라왔습니다.

Heart to Heart

후원자 스토리 



박해받은 성도이며 오픈도어 후원자이셨던 어머니를 그리며

- 최임경

내가 오픈도어를 알게 된 것은 엄마 때문이다. 엄마가 소천하신 후에, 나는 엄마가 매월 소액 정기후원 하시던 것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다. 극동방송, 국제기아대책, 한나호, 한국인선교사, 안양사랑의집, 갈릴리마을... 그 중에 오픈도어가 있었다. 사실 엄마 생전에는, 감동받기 잘하는 엄마가 또 듣는 대로 이것저것 하시거나 하는 생각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뒤늦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챙기기 시작했었다. 엄마는 후원 뿐 아니라 중보기도도 하셨는데 특히 오픈도어 기도를 하셨다.

내가 교회부설 유치원을 다니게 되면서 엄마는 13년째 쉬고 있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은혜를 받으시고 열심을 내셨다. 그때부터 아버지의 핍박이 시작되었다. 핍박은 바로 폭력이 되어 엄마는 심한 구타를 당했다. 엄마는 의사의 딸로 유복하게 자라 대학 철학과를 나오셨다. 음악회에 간다고 드레스를 맞춰 입고, 해수욕장에 갈때는 핫팬츠를 입어서 유신시절 경찰의 단속에 걸릴(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경찰서까지는 안가셨다) 정도로 멋쟁이셨다. 아버지한테 맞고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다. 아버지 때문에 속이 상하면 신경쇠약증 약을 먹고 링거주사를 맞고 누워계시고 이혼을 하시려던 분이시다. 그런 엄마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매번 한 시간씩 맞으셨다. 그리고 다음날 드러눕지도 않고 또 교회에 가셨다. 새벽예배, 수요일예배, 주일저녁예배, 부흥회... 방문을 닫고 못들어오게 해서 나는 엄마가 맞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 하루는 아버지한테 맞고 엄마가 얼굴을 드시는데 눈을 뜰 수도 없이 주먹만큰 눈두덩이 부풀어 올라 있었다. 엄마가 아예 외출을 못하도록 아버지가 일부터 그렇게 하신 것이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고 엄마에게 서울 외갓집으로 도망가시라고 했다. 그렇게 엄마는 외가로 피신을 가셨다.

3개월만에 아버지가 외가로 가서 교회에 가게 해주겠다는 조

건으로 엄마를 데리고 오셨는데, 엄마는 엄청나게 변한 모습으로 알 수 없는 말썽들을 하셨다. 그동안 기도원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엄마 눈의 명자국을 보고 오히려 그 남편이 복덩어리라 했다는 것이다. 또 그 기도원에서 금식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엄마를 회개시키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와 동생을 놓고 매일 가정예배를 시작하셨다. 변화되고 성령충만한 엄마의 모습에 우리는 자동으로 끌려갔다. 가정예배의 주요 기도는 물론 아버지의 구원이었다. 나는 부흥회에서 들은 간증-그 당시에는 극심한 핍박의 간증들이 종종 있었다-들을 생각하며 아버지가 고꾸라져서 회개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했으나 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극적인 회심 대신 서서히 마음을 녹여서 변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셨다. 아버지는 핍박을 멈추시고 우리의 신앙문화에 친근감을 느끼시더니 어느날 한의사에게서 성경책을 선물받았다고 새해부터 우리와 같은 교회에 나가시겠다고 했다. 아버지도 지금은 천국에 계신다.

지난 5월은 엄마가 주님 품으로 가신 달이었다. 그러잖아도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 못가게 되면서 엄마 생각이 많이 났다. 전에 주일 저녁예배들이 없어질 때도 그랬다. 굳이 안가도 되는 예배 때문에 엄마는 그렇게 많이 맞았던가... 엄마, 그리고 엄마 같이 고난 받았던 한국교회의 어머니들, 또 지금도 전세계 곳곳에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죽어간 성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세상 수고가 다 끝나고 천국 면류관을 쓰고 주님 품에서 안식할 텐데 우리 앞에는 남은 과제가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알 수 없는 기쁨도 느낀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과 누를 수 없는 성도의 기쁨... 천국에 계신 어머니를 그리며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든 섬기려한다.

한국오픈도어 연중캠페인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고린도전서12:26



'월 10,000₩ 개인후원자' 500명,
'월 50,000₩ 후원교회' 100교회
기다립니다!

전세계적인 환경이 점점 더 기독교 박해지역의 성도들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크게 만들고 있고 축복받은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부담과 책임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오픈도어는 더욱 적극적으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국오픈도어는 지정헌금 90프로를 박해받는 현지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고 사무실운영비를 위한 모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초창기와 같은 적은 수의 전임 인력으로 사무실을 유지하느라 다각적인 홍보와 개발업무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국오픈도어의 운영과 개발을 위한 월 1만원 정기후원자, 월 5만원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시고 주위에 소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국오픈도어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름(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번호)	전화번호
출금은행	출금계좌번호	
출금액	10,000₩	출금일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 서명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010-7548-3171)

*직접 이체하실 경우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9301-04-167093(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알립니다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를 모바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식지 등 간행물 신청 및 후원신청 모두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월간 오픈도어 소식지와 기도월력, 월간 북한개발소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포스트' 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를 검색하시면 주간 박해소식과 기도제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WWL2020 박해지도와 저금통을 신청하시는 분께 보내드립니다.
- 카카오톡으로 주간박해소식과 기도제목을 신청하시는 분께 보내드립니다.
- 오픈도어 '후원자 스토리' 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오픈도어 선물' 을 드립니다.
- ▶ 문의/신청: 02-596-3171 / 010-7548-3171 / odesk@opendoors.or.kr



희망의 선물 2020 캠페인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20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훈련	선물 1	아프리카의 박해 국가 어린이들에게 성경 전달	×	5,000원	=	원
	선물 2	시리아의 제자훈련 프로그램	×	70,000원	=	원
	선물 3	중동의 목회자 훈련 사역	×	150,000원	=	원
생존	선물 4	위험에 처한 무슬림 국가의 성도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5	탈북자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50,000원	=	원
	선물 6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상담 사역	×	80,000원	=	원
여성	선물 7	박해의 최전선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영육간의 돌봄 제공	×	30,000원	=	원
	선물 8	무슬림 국가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80,000원	=	원
어린이	선물 9	중앙아시아의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20,000원	=	원
	선물 10	박해 최상위 10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서적 전달	×	10,000원	=	원
난민	선물 11	중동의 크리스천 난민들에게 대피소와 구호품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12	한 사람의 난민의 훈련과 의료적 돌봄	×	40,000원	=	원
총 계					=	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opendoors.or.kr

참여안내

보내주신 헌금은 후원자분들의 뜻에 따라 각 선교지에 보내어집니다.

1. 전달하려는 선물에 표시하고 총 선물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캠페인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02-596-3171) 또는 이메일 (odsk@opendoors.or.kr)로 선물 신청 내역을 알려주세요.
4. 정기후원으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 번호:	이름(예금주):	생년월일(예금주번호):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출금동의서명:

작성하신 후에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전화: 010-7548-3171)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